

서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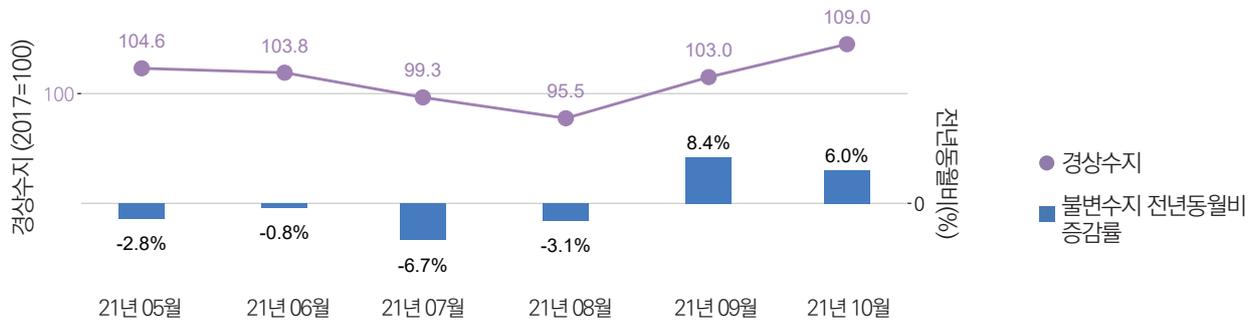
• 10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6.0% 상승. 전월보다 오름폭 다소 감소

- 전년동월대비 +6.0% = 소매업의 기여도 +5.3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0.7%p
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※ 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- 10월 서울 소비경기지수의 상승은 주로 무점포소매와 종합소매 등 소매업 활성화에 기인

• 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8.1% 상승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도 2.0% 상승

- 기타가정용품(9월, -3.6% ⇨ 10월, 14.0%), 종합소매(9월, -3.6% ⇨ 10월, 6.4%) 등의 세부 업종이 상승으로 전환되고, 대부분 업종의 오름폭도 증가하면서 10월 서울 소매업 경기지수 오름폭은 (전월보다) 다소 확대(단, 연료와 가전제품·정보통신의 부진은 지속)
- 10월 서울 소매업은 무점포소매, 기타상품, 음식료품, 기타가정용품, 종합소매, 의복·섬유·신발 등의 순으로 소비증가
- 반면 연료 등의 순으로 소비감소
- 숙박·음식점업 세부 업종 중 숙박은 전월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, 음식점(9월, 3.2% ⇨ 10월, -2.5%)과 주점·커피전문점(9월, 49.0% ⇨ 10월, -6.8%)은 다시 하락으로 내려가면서 숙박·음식점업 경기지수 오름폭이 (전월보다) 큰 폭(-13.6%p)으로 감소
- 10월 서울 숙박·음식점업은 숙박만 소비증가. 반면 주점·커피전문점, 음식점 등의 순으로 소비부진

| 서울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| 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